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 … 한국, 종합 3위 목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1년 연기 끝에 23일 막을 올렸다.

중국 저장성 성도 항저우를 비롯한 6개 도시에서 오는 10월 8일까지 열리는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산하 45개국에서 약 1만2,500명의 선수가 참가해 자웅을 겨룬다. 한국은 39개 종목에 역대 최대규모인 1,180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중국, 일본에 이어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1998 방콕부터 2014 인천까지 5연속 2위를 차지했던 한국은 2018 자카르타 대회 당시 금메달 75개를 따낸 일본에 큰 차이로 뒤진 3위로 한 계단 떨어졌다. 객관적인 전력상 중국과 일본을 넘어서기 어렵다고 판단한 대한체육회는 3위 수성에 초점을 맞췄다.

최윤 단장은 "금메달 50개 이상을 따고자 열심히 준비했다. 우리 선수들은 그만한 능력이 있다." 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스포츠를 통해 많은 사람이 행복했으면 한다. 국민들과 선수들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메달 숫자와 관계없이 다양한 종목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것은 물론, 세계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한 스타 선수들의 활약에 눈길이 모아진다. 우상혁(높이뛰기)·황선우(수영)·안세영(배드민턴)·구본길(펜싱)·신유빈(탁구)·박혜정(역도) 등 개인 기초 종목과 구기 종목 선수들은 강력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시상대 맨 위에 설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인기 종목인 야구와 남자축구 대표팀의 연속 우승 도전도 관심거리다. 야구는 4연패, 축구는 3연패에 도전한다.

2010 광저우 대회 이후 13년 만에 다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바둑, 사상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된 e스포츠에서도 한국의 저력이 발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프로골프(KPGA)코리안투어에서 우승하며 돌풍을 일으킨 장유빈, 조우영과 PGA투어 임성재로 구성된 남자골프도 금메달 기대 종목이다.

이번 대회는 양궁, 복싱, 하키, 테니스 등 9개 종목이 파리 올림픽 출전권 경쟁을 겸한다.

한편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는 200여명의 북한 선수들도 참가했다. 북한은 코로나19의 유입을 막겠다며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 하계올림픽에 일방적으로 불참했다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이 열린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스타디움 전경. 사진=신화통신/연합뉴스

▲ 지난 12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국 선수단 결단식에서 780여 명의 출전 선수들과 체육계 관계자들이 선전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체육회